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7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3일 (음력 2월 18일) 화요일

민주당 '문재인직함' 여론조사 경선 변수

지방정치인 '불리' · '묻지마' 민심왜곡 반발 움직임

경선 승리= 본선 당선 유력해 공정성 · 대표성 증폭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간 직함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돼 경선 전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2일 광주와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5개 구청장, 22개 시장, 군수 등을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자동응답(ARS)조사 50%를 합산해 후보를 결정한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의 경우 컷 오프를 위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미 마쳤다.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 선출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때 어떤 직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비 후보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이 반영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사용할 수 있는 예비후보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차 컷오프를 위한 적합도 조사를 앞둔 광주 모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문재인대통령 청와대~'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따른 모구청장 예비후보 역시 '노무현대통령 청와대~'를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 일꾼의 선택권을 시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여론조사 경선이 '문재인 대통령'에 가려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출신이나 지방의원 등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한 예비후보나 정치신인 등은 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에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민주당 전남도당은 적합도 조사에 '문재인 대통령' 과 관련된 직함 사용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를 사용하는 직함이 여론조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당에서도 '문재인'이 들어간 직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당의 사례를 참고해 조만간 열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면접과 함께, 여론조사를 앞둔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역시 중앙당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 장만채 전 전남도육감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대통령' 직함 사용 여부에 따라 후보간 사활이 걸렸다.

실제 최근 언론이 실시한 수차례 전남지사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직함 사용여부에 따라 1위~3위가 요동을 쳤다.

이와관련,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직함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당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조기경선 국면에서 인물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 경쟁없이 '문재인 마케팅'으로 승부가 갈릴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경선 승리=본선 당선이 유력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대표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벚꽃 만개한 순천 동천 30리 벚꽃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서면 학구리 까지 이어지는 동천 30리 벚꽃길에 벚꽃이 활짝 피어있다.

무안국제공항, 개항 10년만에 인천 직항 개설

전남도, ㈜에어필립과 주 7회 운항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10년만에 인천국제공항 간 직항로가 개설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일 ㈜에어필립 항공사와 투자유치협약을 맺고,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유치협약식에는 엄일석 ㈜에어필립 회장,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 이혜자 도의원 등이, 업무협약식에는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김학중 초당대학교 기획연구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에어필립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매일 왕복 1회, 주 7회 운항할 예정이다. 운항기종은 ERJ-145, 50인승 제트여객기다. 앞으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를 통과하면 취항할 계획이다. ERJ-145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한 항공기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협약에 따라 ㈜에어필립은 무안국제공항을 허브(Hub)공항으로 하고 항공 노선 개설을 위해 항공기 기재 구입 등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3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연말까지 항공기 3대를 추가 도입해 2019년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 노선 등에 국제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이로써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07년 11월 개항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항공사가 허브공항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항공사는 국내선, 국제선 개설이 용이해졌고, 무안-인천 간 항공노선 개설로 지역민의 시간과 경비 절감 등 항공교통 편의가 좋아지게 됐다.

김정환 기자

Photo 漫評

절충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28일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공동교섭단체의 명칭과 양당 간 교대로 대표로 등록할지 여부, 최초로 누구를 교섭단체의 대표로 등록할지 여부 등에 합의를 이뤘다"며 "상세한 합의안의 내용은 29일 중 합의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교섭단체 첫 대표(등록대표)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맡는다. 교섭단체 대표 임기는 올해 4~5월, 6~8월 등으로 나눠서 맡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교섭단체 명칭은 두 당의 이름을 딴 '평화와 정의의 모임'과 '정의와 평화의 모임' 중 '평화'를 앞세운 '평화와 정의의 모임'으로 결정했다. 공동교섭단체 대표와 교섭단체 명칭을 하나씩 나눠 가진 모양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시스

노회찬

이용주

박지원